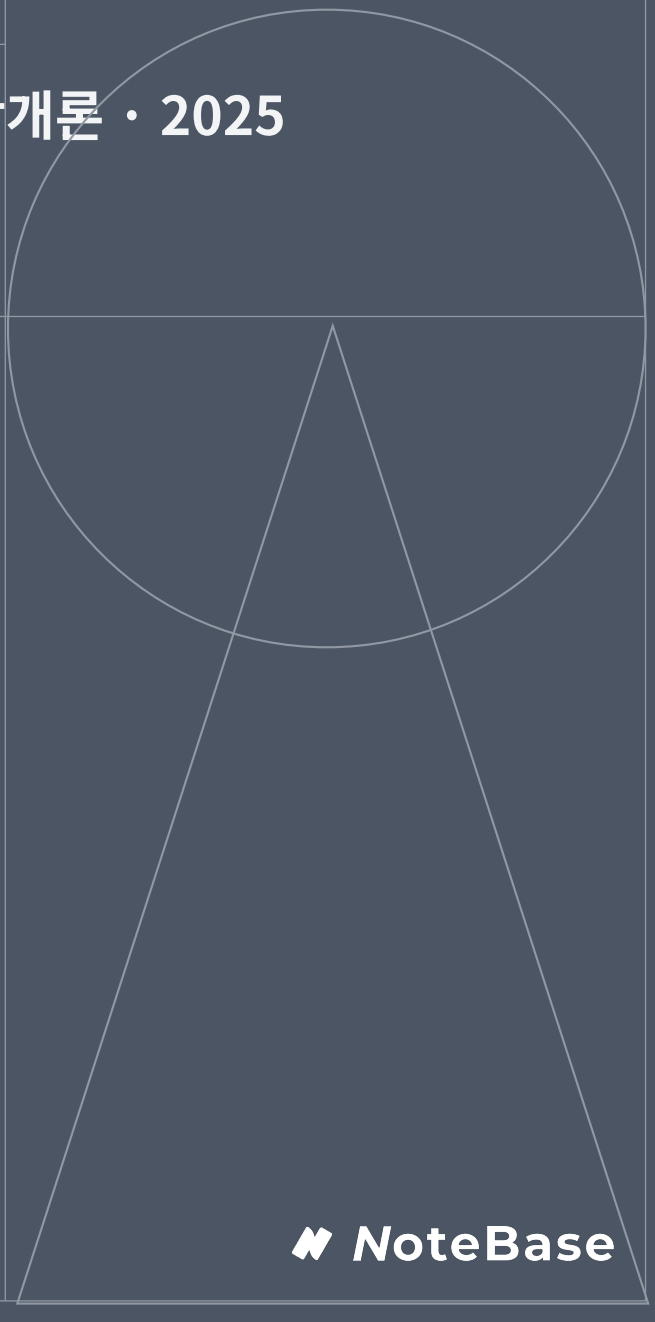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5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5

문 1.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의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특성을 설명한 것은?

① 규모의 경제

② 규모의 불경제

③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

④ 범위의 경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각 제품을 같은 양만큼 생산할 때,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총비용이 따로 생산하는 총비용의 합보다 작으면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공통 해설

범위의 경제는 여러 제품을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는 특성이다. 비교할 때는 **각 제품의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동생산의 총비용이 제품별 분리생산 비용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여러 제품이 설비나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여 중복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그 예이다.

문제에서 제시한 것은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평균비용 변화나 투입량 증가에 따른 산출량 변화가 아니라, 같은 제품들을 함께 생산하는지 따로 생산하는지에 따른 총비용 차이이다. 따라서 제시된 특성은 범위의 경제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거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생산활동을 포함한다.

②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유량변수이다.

③ 자국민의 해외 생산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기업 간에 거래되는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간생산물의 가치는 최종생산물 가격에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 또는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중복계산을 피한다.

선지별 해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이다.

① O: GDP는 생산자의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도 포함한다.

② O: GDP는 1년이나 1분기처럼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량변수이다. 특정 시점에 보유한 양을 측정하는 저량변수와 구별된다.

③ O: 자국민이 해외에서 수행한 생산활동은 생산 장소가 국외이므로 자국의 GDP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생산은 **생산이 이루어진 국가의 GDP**에 포함된다.

④ X: 중간생산물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그 가치는 최종생산물 가격에 이미 반영되므로, GDP를 구할 때 중간생산물의 거래액을 별도로 더하면 중복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제빵업체가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한 밀가루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판매된 빵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GDP에는 **최종생산물의 가치만 합산**하거나, 각 생산 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합산한다.

NoteBase

문 3. 어느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일 때, 가격 변화로 인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20% 증가했다. 원래 가격이 120이라면 새로운 가격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① 98

② 108

③ 118

④ 128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격탄력성이 2라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가 가격 변화율의 2배라는 뜻이다. 수요량이 20% 증가했으므로 가격은 **10% 하락**하며, 새로운 가격은 108이다.

계산 과정

1. 가격탄력성의 관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을 절댓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ft|수요량 변화율가격 변화율|=2를 적용한다.

2. 가격 변화율: 수요량이 20% 증가했으므로 가격 변화율의 크기는 $\frac{20\%}{2} = 10\%$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 즉,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10% 낮아진다.

3. 새로운 가격: 원래 가격 120을 기준으로 하락분을 계산하면 $120 \times 0.10 = 12$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격은 $120 - 12 = 108$이며, 이는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국채 매도가 본원통화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본원통화: 감소, 이자율: 상승

② 본원통화: 감소, 이자율: 하락

③ 본원통화: 증가, 이자율: 상승

④ 본원통화: 증가, 이자율: 하락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중앙은행이 국채를 팔면 매입 대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본원통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시중의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이자율은 상승**한다.

구성 요소별 해설

본원통화: 감소.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합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하면 매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중 현금이나 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국채 매도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여 본원통화를 감소시킨다.

이자율: 상승. 본원통화가 줄면 은행의 대출과 예금 창출이 제약되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다른 조건과 화폐 수요가 일정하다면, 기존 이자율에서는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에 비해 공급되는 화폐가 부족해진다. 이자율이 오르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져 화폐 수요량이 줄어들므로, 화폐시장은 **더 높은 이자율에서 균형**을 이룬다.

따라서 '본원통화 감소, 이자율 상승'의 연결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갑과 을 두 사람은 다음의 전략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별로 각자의 전략에 따라 보수 역시 달라진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단, 괄호 안의 앞의 숫자는 갑의 보수, 뒤의 숫자는 을의 보수이다)

①

게임 A		을	
		전략 1	전략 2
갑	전략 1	(10, 5)	(15, 0)
	전략 2	(6, 8)	(10, 2)

②

게임 B		을	
		전략 1	전략 2
갑	전략 1	(−1, −1)	(−15, 0)
	전략 2	(0, −15)	(−5, −5)

③

게임 C		을	
		전략 1	전략 2
갑	전략 1	(50, 50)	(−25, 75)
	전략 2	(75, −25)	(0, 0)

④

게임 D		을	
		전략 1	전략 2
갑	전략 1	(10, 7)	(12, 0)
	전략 2	(6, 10)	(15, 3)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게임 D에서 갑은 을이 전략 1을 택하면 전략 1이, 전략 2를 택하면 전략 2가 유리하다. 따라서 갑에게는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유리한 우월전략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하는 우월전략균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두 사람 모두 우월전략을 갖고 이를 선택하면 우월전략균형이 성립한다. 표에서 갑은 같은 열의 앞 숫자를 위아래로, 을은 같은 행의 뒤 숫자를 좌우로 비교한다. 아래 O/X는 각 게임에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① O: 게임 A에서 갑은 을이 전략 1을 선택하면 10 > 6, 전략 2를 선택하면 15 > 10이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을도 갑이 전략 1을 선택하면 5 > 0, 전략 2를 선택하면 8 > 2이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전략 1**을 선택하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며, 보수는 (10, 5)이다.

② O: 게임 B에서 갑은 을이 전략 1을 선택하면 0 > −1, 전략 2를 선택하면 −5 > −15이므로 전략 2가 우월전략이다. 을도 갑이 전략 1을 선택하면 0 > −1, 전략 2를 선택하면 −5 > −15이므로 전략 2가 우월전략이다. **음수 보수에서도 더 큰 값이 유리**하므로, 두 사람 모두 전략 2를 선택하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보수는 (−5, −5)이다.

③ O: 게임 C에서 갑은 을이 전략 1을 선택하면 75 > 50, 전략 2를 선택하면 0 > −25이므로 전략 2가 우월전략이다. 을도 갑이 전략 1을 선택하면 75 > 50, 전략 2를 선택하면 0 > −25이므로 전략 2가 우월전략이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전략 2를 선택하는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며, 보수는 (0, 0)이다. 두 사람이 전략 1을 선택할 때의 (50, 50)보다 보수가 낮더라도, 우월전략은 **상대의 전략을 고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보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④ X: 게임 D에서 갑은 을이 전략 1을 선택하면 10 > 6이므로 전략 1이 유리하지만, 을이 전략 2를 선택하면 15 > 12이므로 전략 2가 유리하다. 따라서 **갑에게는 우월전략이 없다**. 을은 갑이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 7 > 0, 10 > 3이므로 전략 1이 우월전략이지만, 을에게만 우월전략이 있어서는 우월전략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전략 1을 선택하는 경우 서로 혼자 전략을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으므로 내시균형은 성립하지만,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우월전략이 있는 우월전략균형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6. IS-LM 모형 및 AD-AS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지출 확대가 이자율, 물가, 총생산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①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총생산: 증가

② 이자율: 상승, 물가: 하락, 총생산: 증가

③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총생산: 감소

④ 이자율: 하락, 물가: 하락, 총생산: 감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정부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 아래에서 물가와 총생산이 함께 상승한다. 생산 증가로 화폐수요가 늘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통화량이 줄어 이자율도 상승한다.

구성 요소별 해설

통화량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지출 확대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늘려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각 물가 수준에서 균형 총생산이 증가하므로 AD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자율: 상승. 생산이 늘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수요가 증가하므로, 우상향하는 LM곡선 위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물가 상승은 명목통화량이 일정할 때 **실질통화량을 감소**시켜 LM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이자율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다.

물가: 상승.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기존 물가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새로운 균형에서는 생산 확대와 함께 물가도 상승한다.

총생산: 증가. 정부지출이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을 확대한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인 **구축효과**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통화량 감소가 생산 증가 폭을 줄이지만, 주어진 곡선의 기울기 아래에서 단기 균형 총생산은 처음보다 증가한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물가 상승·총생산 증가의 조합이며,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7. 다음과 같이 어느 폐쇄경제의 기본 정보가 주어졌다고 할 때,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소득은?

◯ $C = 50 + 0.5(Y - T)$
◯ $I = 50 - 5r$
◯ $G = 50$
◯ $T = 50$
◯ $m^s = 100$
◯ $m^d = Y - 10r$
(단,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T: 세금, Y: 소득, r: 이자율, m^s: 실질화폐공급, m^d: 실질화폐수요)

① 150
② 175
③ 200
④ 2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화시장 균형식 $Y = 250 - 10r$와 화폐시장 균형식 $Y = 100 + 10r$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득은 175이다.

계산 과정

1. 재화시장 균형: 폐쇄경제에서는 순수출이 없으므로 소득 Y가 소비 C, 투자 I, 정부지출 G의 합과 같을 때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룬다. 소비는 **세금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T = 50을 대입하면 $C = 50 + 0.5(Y - 50) = 25 + 0.5Y$이다. 이를 $Y = C + I + G$에 대입하면 $Y = (25 + 0.5Y) + (50 - 5r) + 50$이다. 정리하면 $0.5Y = 125 - 5r$, 즉 $Y = 250 - 10r$가 된다. 이는 각 이자율 r에서 재화시장을 균형시키는 소득을 나타낸다.

2. 화폐시장 균형: **실질화폐공급과 실질화폐수요가 같아야** 하므로 $m^s = m^d$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100 = Y - 10r$이다. 이를 소득에 대해 정리하면 $Y = 100 + 10r$이다.

3. 동시균형 소득: 두 시장에서 소득과 이자율이 각각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두 균형식을 연립한다. $250 - 10r = 100 + 10r$에서 $20r = 150$이므로 r = 7.5이다. 이 값은 두 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이자율이다. 이를 화폐시장 균형식에 대입하면 $Y = 100 + 10 \cdot 7.5 = 175$이다. 따라서 두 시장의 동시균형 소득은 175로,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K군은 독서를 위해 전자책과 종이책만을 소비한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구매하여 독서할 때의 한계대체율($MRS_{xy} = \frac{MU_x}{MU_y}$)은 $\frac{2y}{x}$이다.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격이 각각 200원과 300원이며, K군이 도서 구입 예산 9,000원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할 때, K군의 최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화인 x와 y는 각각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소비량, MU_x와 MU_y는 각각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한 한계효용이다)

① 전자책을 30권 구매한다.

② 총 35권의 책을 구매한다.

③ 종이책 소비량은 전자책의 2배이다.

④ 종이책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하는 최적점에서는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 조건에서 $x = 3y$이고, 예산 9,000원을 모두 사용하는 소비량은 전자책 30권과 종이책 10권이다.

선지별 해설

전자책 소비량을 x, 종이책 소비량을 y라고 하자. 한계대체율은 같은 효용을 유지하면서 전자책 한 권을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종이책의 양이다.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하는 최적점에서는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일치**하므로 $\frac{2y}{x} = \frac{200}{300} = \frac{2}{3}$이다. 이를 정리하면 $x = 3y$이다. 이 비율이 다르면 지출을 한 재화에서 다른 재화로 옮겨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다.

도서 구입 예산을 모두 쓰는 예산식은 $200x + 300y = 9{,}000$이다. 여기에 $x = 3y$를 대입하면 $200 \cdot 3y + 300y = 9{,}000$, 즉 $900y = 9{,}000$이므로 y = 10이다. 따라서 x = 30으로, 전자책에 6,000원, 종이책에 3,000원을 지출한다.

① O: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자책 소비량은 30권이다. 종이책 10권과 함께 구매하면 한계대체율과 가격비율이 같아지고 예산 9,000원을 모두 사용한다.

② X: 전자책 30권과 종이책 10권을 구매하므로 전체 구매량은 30 + 10 = **40권**이다. 총 35권이 아니다.

③ X: 최적 소비량의 관계는 $x = 3y$이다. 따라서 **전자책 소비량이 종이책의 3배**이며, 종이책 소비량은 전자책의 1/3이다.

④ X: 최적 소비점에서는 **종이책도 10권 소비**한다. 전자책만 구매하는 선택이 아니라, 전자책 30권과 종이책 10권을 함께 구매하는 선택이 효용을 극대화한다.

NoteBase

문 9.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③ 구직단념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취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실업률이 높아진다.

④ 효율성임금이론에 의하면 시장균형 수준을 상회하는 효율임금의 지급은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효율성임금이론에서는 시장균형보다 높은 임금이 유지되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임금 지급이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마찰적 실업은 구직자와 일자리가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구직자의 능력 등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총수요가 줄어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축소하면서 발생한다.

② O: 완전고용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이직이나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 시간이 걸리므로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며, 구조적 실업도 남을 수 있다.

③ O: 구직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 사람이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취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취업 전까지는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이동**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취업자 수는 그대로이고 실업자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같은 수만큼 늘어나므로 실업률이 높아진다.

④ X: 효율성임금이론은 기업이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해, 그 임금에 일하려 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는 부분은 '균형보다 높은 임금이 유지되어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0. 어느 지역에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공공재 X에 대한 수요함수가 $P = 1.5 - 0.15Q$로 동일한 주민은 60명이고, 수요함수가 $P = 2 - 0.2Q$로 동일한 주민은 40명이다. 공공재 생산에 대한 한계비용은 34로 일정하다고 할 때, 공공재의 최적 공급 수준은? (단, P, Q는 각각 공공재 X에 대한 가격과 수량이다)

① 0

② 4

③ 8

④ 12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는 같은 공급량에서 주민들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으로 공급된다. 이 문제에서는 $170 - 17Q = 34$를 만족하는 공급량 8이 최적이다.

계산 과정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동일한 공급량 Q를 함께 소비한다. 각 주민의 수요함수에 나타난 P는 그 공급량에서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얻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즉 한계편익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같은 Q에서 각 주민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하여 구한다.

60명 집단의 한계편익 합은 $60(1.5 - 0.15Q) = 90 - 9Q$이고, 40명 집단의 한계편익 합은 $40(2 - 0.2Q) = 80 - 8Q$이다. 두 집단을 합하면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MB = 170 - 17Q$이다.

공공재 한 단위를 더 공급할 때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추가 생산비용보다 크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공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므로, 최적 공급량은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다. 한계비용 34를 대입하면 $170 - 17Q = 34$이고, 이를 정리하면 $17Q = 136$이므로 Q = 8이다.

Q = 8일 때 두 집단 주민의 1인당 한계편익은 각각 0.3과 0.4로 모두 양수이다.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60 × 0.3 + 40 × 0.4 = 34로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최적 공급량은 8이며, ③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력현상의 존재는 경기불황 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② 테일러준칙은 재정정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위한 준거식이다.

③ 화폐수량방정식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통화공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④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테일러준칙은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제시하는 **통화정책**의 준거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정하는 재정정책의 준거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이력현상은 일시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이 사라진 뒤에도 실업 증가나 생산능력 저하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장기실업으로 숙련이 약화되면 경기가 회복되어도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불황기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수요와 고용을 뒷받침하여 **일시적 충격이 장기적 손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② X: 테일러준칙은 **통화정책의 수립·평가를 위한 준거식**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실제 산출량과 잠재산출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정하도록 제시한다. 물가가 목표보다 높거나 산출량이 잠재수준을 웃돌면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한다. 정부지출·조세를 조정하는 재정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③ O: 화폐수량방정식 $MV = PY$에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Y는 실질산출량이다. **장기적으로 유통속도가 안정적이고 실질산출량의 증가가 실물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통화량이 실질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통화공급 증가율이 높을수록 장기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진다.

④ O: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물가안정이 반드시 물가상승률 0%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낮은 양(+)의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고, 명목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확보하여 불황기에 금리를 낮출 여지를 두는 데 도움이 된다.

NoteBase

문 12.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휘발유에 대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다. 정부가 휘발유 공급자에게 단위당 3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P는 휘발유 가격이고, Q^D와 Q^S는 각각 휘발유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 휘발유 시장수요곡선: $Q^D = 80 - P$
◯ 휘발유 시장공급곡선: $Q^S = 0.5P - 10$

① 정부의 조세수입은 57이다.

② 세금부과로 인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1.5이다.

③ 세금부과 후 균형가격은 61, 균형거래량은 19이다.

④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보다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금 부과 전 가격은 60이고, 부과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61, 공급자가 세금을 낸 뒤 받는 가격은 58이다.
따라서 단위당 세금 부담은 소비자 1, 공급자 2로, **공급자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세금 부과 전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므로 $80 - P = 0.5P - 10$이다. 이를 풀면 균형가격은 60, 균형거래량은 20이다.

세금 부과 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P_c, 공급자가 세금을 낸 뒤 받는 가격을 P_s라 하자. 단위당 세금이 3이므로 $P_s = P_c - 3$이다. 공급량은 **세금을 제외한 수취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균형조건은 $80 - P_c = 0.5(P_c - 3) - 10$이다. 이를 정리하면 $1.5P_c = 91.5$이므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61, 공급자의 수취가격은 58, 거래량은 19이다.

① O: 정부는 실제 거래된 수량마다 세금 3을 거두므로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 × 과세 후 거래량**이다. 따라서 3 × 19 = 57이다.

② O: 세금으로 거래량이 20에서 19로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공급자의 생산비용보다 큰 일부 거래가 사라진다. 두 곡선이 직선이므로 이때 사라지는 순편익은 밑변이 거래량 감소분 1, 높이가 단위당 세금 3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따라서 후생 손실은 $\frac{1}{2} \cdot (20 - 19) \cdot 3 = 1.5$이다. **조세수입 자체는 정부로 이전된 금액**이므로 후생 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O: 세금 부과 후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균형가격은 61이고,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80 - 61 = 19$이다. 공급자도 세후 수취가격 58을 기준으로 $0.5 \times 58 - 10 = 19$만큼 공급하므로 균형거래량은 19이다.

④ X: 소비자의 단위당 실질 부담은 지불가격의 상승분인 $61 - 60 = 1$이고, 공급자의 단위당 실질 부담은 세후 수취가격의 하락분인 $60 - 58 = 2$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부담이 소비자의 부담보다 크다**.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과 소비자·공급자가 가격 변화를 통해 실제로 나누어 부담하는 크기는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3.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는 X재는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국가에서 국내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X재에 대한 정책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수입량은 X재의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제도의 도입

②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③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④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인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관세를 내려도 국제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하락**한다. 기존 소비량에 대한 지출이 줄고 추가 소비에서도 이익이 생겨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핵심 풀이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금액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수록 커진다. 이 국가는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 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 부담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국제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 가격이 내려간다. 기존에 구매하던 수량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가격 하락으로 늘어난 소비에서도 추가 잉여가 생긴다. 따라서 **관세 인하는 국내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제도와 관세 인상: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은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을 강제하므로 소비자 가격을 높인다. 관세 인상도 수입품의 국내 공급가격을 높인다. 두 정책 모두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키워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킨다.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국내 생산자의 비용이 늘어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부족분을 같은 국제가격과 관세 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량은 늘어도 **국내 소비자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국내 공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 안 되며, 이 정책은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 이 영구채의 만기수익률은?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년 같은 이자를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연간 이자를 채권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이자 10만 원은 가격 100만 원의 10%이므로 만기수익률은 연 10%이다.

계산 과정

영구채는 만기 원금 상환 없이 같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채권이다. 채권 가격을 P, 연간 이자액을 C, 연 만기수익률을 r이라 하면, 미래 이자들을 r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은 $P = \frac{C}{r}$이다. 따라서 **가격과 연간 이자액으로 수익률을 구할 때**는 $r = \frac{C}{P}$를 사용한다.

연간 이자액은 10만 원, 채권 가격은 100만 원이다. 두 금액의 단위를 만 원으로 맞추어 대입하면 $r = \frac{10}{100} = 0.1$이다. 이는 투자금 100만 원당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소수로 표시한 수익률 0.1을 백분율로 바꾸면 연 10%로, ②의 10%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솔로우 성장모형(Solow growth model)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1인당 생산함수가 $y = \sqrt{k}$이며, 감가상각률은 1%, 인구증가율은 4%, 기술진보율은 0%이라고 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이 100이라면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을, k는 1인당 자본량을 나타낸다)

① 10%

② 30%

③ 50%

④ 7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균제상태에서는 **감가상각과 인구 증가를 보충하는 투자**만큼 저축해야 1인당 자본량이 유지된다. 필요한 1인당 투자량은 5이고 1인당 생산량은 10이므로, 생산의 절반인 **50%**를 저축해야 한다.

계산 과정

균제상태 조건: 저축률을 s, 감가상각률을 δ, 인구증가율을 n이라 하자. 솔로우 모형에서는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므로 1인당 투자량은 sy이다. 기술진보율이 0%일 때 균제상태는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한 상태**이며, 이를 유지하려면 감가상각을 보충하는 투자 δk와 늘어난 인구에게 같은 자본량을 제공하는 투자 nk가 필요하다. 따라서 $sy = (\delta + n)k$가 성립한다.

1인당 생산량: 주어진 생산함수 $y = \sqrt{k}$에 균제상태 자본량 100을 대입하면 $y = \sqrt{100} = 10$이다. 이는 한 사람당 생산량이 10이라는 뜻이다.

자본 유지에 필요한 투자량: 감가상각률은 0.01, 인구증가율은 0.04이므로
$(\delta + n)k = (0.01 + 0.04) \cdot 100 = 5$이다. 이 중 1은 낡은 자본을 보충하고, 4는 인구 증가에 맞춰 자본을 늘리는 데 필요하다. 두 항을 모두 보충해야 **1인당 자본량 100을 유지**할 수 있다.

저축률: 생산량 10 중 5를 저축해야 하므로 $s = \frac{5}{10} = 0.5$이다. 따라서 저축률은 50%로, ③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현재 한국의 금리는 10%, 미국의 금리는 5%이며 현물환율은 1,000원/달러이다. 무위험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할 때, 선물환율에 가장 가까운 값은?

① 950원/달러

② 1,000원/달러

③ 1,050원/달러

④ 1,100원/달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선물환으로 환위험을 제거하면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의 만기 원화 금액이 같아야 한다**. 이 조건에서 선물환율은 약 1,047.62원/달러이므로 가장 가까운 값은 1,050원/달러이다.

계산 과정

선물환율을 F원/달러라고 하자. 현물환율은 1,000원/달러, 한국 금리는 10%, 미국 금리는 5%이다. 제시된 두 금리는 **선물환 만기와 같은 투자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로 놓고 비교한다.

1,000원을 한국에 투자하면 만기에 1,000 × 1.10 = 1,100원을 받는다. 같은 1,000원을 현물환율로 바꾸면 1달러이고, 이를 미국에 투자하면 만기에 1 × 1.05 = 1.05달러를 받는다. 이 달러를 선물환율 F에 미리 팔기로 계약하면 만기에 받는 원화는 $1.05F$원으로 확정된다. 무위험이자율평가설에서는 차익거래 기회가 없도록 **두 투자 경로의 만기 원화 금액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1.05F = 1,100$이다. 이를 정리하면 $F = \frac{1,100}{1.05} \approx 1,047.62$원/달러이다. 미국 투자로 얻는 1.05달러를 이 환율로 바꾸어야 한국 투자로 얻는 1,100원과 같아진다는 뜻이다.

계산한 약 1,047.62원/달러에 가장 가까운 선택지의 값은 ③의 1,050원/달러이다.

NoteBase

문 17. 어느 폐쇄경제에서 생산하는 두 최종 재화의 생산량 및 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202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단, 실질GDP 작성을 위한 기준연도는 2020년이며, X재와 Y재 외의 재화는 생산하지 않는다)

	X재		Y재	
	생산량	가격	생산량	가격
2020년	5	10	90	4
2025년	10	10	100	5

① 80

② 100

③ 110

④ 12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GDP디플레이터는 같은 해의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2025년 명목GDP는 600, 2020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GDP는 500이므로 GDP디플레이터는 $\frac{600}{500} \times 100 = 12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두 GDP 모두 **2025년 생산량**을 사용하되, 명목GDP에는 2025년 가격을, 실질GDP에는 기준연도인 2020년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산량을 같게 놓아 가격 차이를 측정한다.

2025년 명목GDP: 표의 2025년 행에서 X재의 생산량은 10, 가격은 10이고 Y재의 생산량은 100, 가격은 5이다. 두 최종 재화만 생산하므로 각 재화의 생산량과 당해 연도 가격을 곱해 더하면 $10 \times 10 + 100 \times 5 = 600$이다.

2025년 실질GDP: 2025년 생산량인 X재 10과 Y재 100에 **2020년 가격**인 X재 10과 Y재 4를 각각 적용한다. 따라서 $10 \times 10 + 100 \times 4 = 500$이다. 이는 2025년 생산물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며, 2020년 생산량인 5와 90은 사용하지 않는다.

2025년 GDP디플레이터: $\frac{600}{500} \times 100 = 120$으로, ④의 120과 일치한다. GDP 금액의 단위는 비율을 구할 때 소거되므로 디플레이터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은 지수**이다. 120은 2025년 생산물의 가격 수준이 2020년 가격으로 평가할 때보다 20% 높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8.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0.5(L + K)$이고, 노동(L)과 자본(K)의 단위 가격은 각각 2와 1이다. 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의 한계비용은?

① 0.5

② 1

③ 1.5

④ 2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노동과 자본은 생산 기여도가 같지만 자본의 단위 가격이 더 낮으므로, **자본만 사용**할 때 비용이 최소화된다. 생산량을 1단위 늘리려면 자본 2단위가 필요하므로 한계비용은 2이다.

계산 과정

생산요소 선택: Q는 생산량, L과 K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다. 생산함수 $Q = 0.5(L + K)$에서 노동이나 자본을 1단위 늘리면 생산량은 똑같이 0.5단위 증가하므로, 두 요소는 완전대체 관계이다. 노동 1단위의 가격은 2, 자본 1단위의 가격은 1이므로 **노동을 같은 양의 자본으로 대체**하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노동을 사용하지 않고 자본만 사용한다.

최소비용 도출: $L = 0$이면 생산함수는 $Q = 0.5K$이므로, 생산량 Q에 필요한 자본은 $K = 2Q$이다. 총비용을 C라 하면 $C = 2L + K$이므로 최소비용함수는 $C(Q) = 2Q$이다. 이는 **생산물 1단위마다 자본 2단위**가 필요하고, 자본의 단위 가격이 1이어서 비용이 2씩 든다는 뜻이다.

한계비용 계산: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1단위 추가할 때 증가하는 비용이다. 최소비용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면 $MC = \frac{dC}{dQ} = 2$이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생산물 1단위당 2이며, ④의 2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어느 독점기업은 판매 지역을 A시장과 B시장으로 구분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 기업의 해당 상품에 대한 한계비용은 20이고 A시장과 B시장에 대한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을 때, A시장과 B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차이는? (단, P_A와 Q_A는 각각 A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고, P_B와 Q_B는 각각 B시장에서 가격과 수량이다)

○ A시장의 수요곡선: $P_A = 100 - 2Q_A$
○ B시장의 수요곡선: $P_B = 50 - Q_B$

① 15
② 20
③ 25
④ 3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시장을 나누어 가격을 정하면 **각 시장의 한계수입을 한계비용 20과 같게** 하는 판매량을 선택한다. 이때 A시장의 가격은 60, B시장의 가격은 35이므로 판매 가격 차이는 25이다.

계산 과정

시장별로 가격을 달리 정하는 독점기업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판매량**을 선택한다. 한계수입은 판매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며, 이 문제의 한계비용은 20이다. 두 시장 모두 판매량이 늘수록 한계수입이 감소하므로, 한계수입이 20보다 크면 판매를 늘리고 작으면 줄여 이윤을 높일 수 있다.

A시장: 총수입은 가격에 수량을 곱한 $TR_A = P_A Q_A = 100Q_A - 2Q_A^2$이다. 이를 판매량에 대해 미분하면 한계수입은 $MR_A = 100 - 4Q_A$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100 - 4Q_A = 20$에서 $Q_A = 20$을 얻는다. 이는 A시장의 이윤극대화 판매량이며,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판매 가격은 $P_A = 100 - 2 \cdot 20 = 60$이다.

B시장: 총수입은 $TR_B = P_B Q_B = 50Q_B - Q_B^2$이고, 한계수입은 $MR_B = 50 - 2Q_B$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50 - 2Q_B = 20$에서 $Q_B = 15$를 얻는다. 이 판매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판매 가격은 $P_B = 50 - 15 = 35$이다.

가격 차이: A시장의 판매 가격이 B시장보다 높으며, 그 차이는 $60 - 35 = 25$이다. 따라서 ③의 25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다음과 같다. 이 기업은 해당 제품을 최대 4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 유지비 2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량(개)	한계수입(만 원)	한계비용(만 원)
0	–	–
1	10	8
2	10	4
3	10	6
4	10	12

① 제품 4개를 생산하면 적자가 발생한다.

②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한다.

③ 제품 3개를 생산할 때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④ 제품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세 번째 제품까지는 한 개 더 생산할 때 수입 증가분이 비용 증가분보다 크다. 네 번째 제품은 한계수입이 10만 원인데 한계비용이 12만 원이어서 **이윤을 2만 원 감소**시키므로, 3개를 생산할 때 이윤이 최대가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제품을 한 개 더 생산할 때 각각 늘어나는 총수입과 총비용이다. 총수입은 한계수입을 누적하고, 총비용은 한계비용의 누적액에 고정비용 2만 원을 더해 구한다. 생산량이 1·2·3·4개일 때 총수입은 각각 10·20·30·40만 원이고, 총비용은 각각 10·14·20·32만 원이다.

① X: 4개를 생산하면 총수입은 40만 원, 총비용은 2 + 8 + 4 + 6 + 12 = 32만 원이다. 이윤은 40 − 32 = 8만 원이므로 적자가 아니라 **8만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

② X: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생산량이 1·2·3·4개일 때 평균비용은 각각 10만 원, 7만 원, $\frac{20}{3}$만 원, 8만 원이다. 따라서 평균비용은 3개까지 감소하다가 **4개에서 증가**한다.

③ O: 첫째부터 셋째 제품까지는 모두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커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한다. 3개를 생산하면 이윤은 30 − 20 = 10만 원이다. 네 번째 제품을 추가하면 수입은 10만 원 늘지만 비용은 12만 원 늘어 **이윤이 2만 원 감소**한다. 최대 생산량이 4개이므로 3개를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④ X: 한계수입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한 개당 10만 원으로 일정하므로, 총수입도 생산량에 비례해 늘어난다. 평균수입은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므로, 생산량이 1~4개인 모든 경우에 **한 개당 10만 원으로 일정**하다.

NoteBase